

이리 저리뛰는 마음, 달랠 주문 갖고 계신지요?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 김고아를 찬 손오공

수행원 겸 제자이던 손오공 잃은 현장법사, 앞길 막막하다. 바로 이렇게 앞길 막막할 때 불보살님의 가피가 있지. 진실한 수행을 이어가는 현장법사의 앞길에 이렇게 막힐 리가 있나. 관세음보살님 노파로 화현하여 나타나, 부처님이 주신 쇠고리를 전해 주며 자상하게 일러주신다.

“여기 죽은 제 아들이 입던 무명옷 한 벌과 금고리 두루 두건이 있습니다. 마침 인연이 닿았으니 스님께 드리리다. 제가 제자 따라가 설득하여 돌려보내 드릴 테니 이 모자 씌우고 옷을 입히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을 딱 붙들어 매는 진언(定心呪)이 있어요. 고리를 조이는 진언(緊 呪)이라고도 하죠. 이 정심주 잘 외우고 계시다가 옷을 입히시고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거든 주문을 외우세요.”

한편 성질내고 떠난 손오공 월인인지 마음이 편치 않다. 한 번에 화과산 수렴동으로 가지 못하고 예전에 행패끼나 부렸던 동해 용궁에 들려 사정을 이야기 하고 푸념을 늘어놓는다.

마침 벽에 장량이 황석공에게 세 번 신발을 주어 바치던 그림 있어 손오공이 그림의 의미를 묻고 용왕이 그림을 설명하며 은근히 손오공을 달랜다.

이번에도 제천대성께서 성질을 참지 못하고 당나라 성승을 도와 불경 가져오는 일을 성취하지 못하면 결국 요괴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한 번의 화남으로 앞길을 망치지 마세요.

손오공도 생각이 있다. 고평 겨울 만큼 겪어 철도 조금 들었다.

올바른 길에 마음을 댔던 터이라 선근(善根)도 심겨졌다. 스스로를 잘 달랠 마음을 돌린다. 아무래도 다시 들어가 당나라 스님 모시고 가야겠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관세음보살 만나니 더욱 마음 뜨겁하여 변명을 하곤 부러부러 현장법사 찾아 돌아온다.

또 다시 여자저차하여 금고리 두루 두건과 옷한벌 발견하고 현장법사의 코드감에 웃입고 두건 쓴다.

애고고~ 손오공아~ 좋은 시절 다 갔구나!

현장법사 김고아주에 때굴 때굴 성나서 고리 모자 벗기려 하니 이미 골수에 뿌리를 내렸네.

현장법사 한 대 치려다 또다시 때굴 때굴 부처님과 보살님의 숨씨에 걸려 꼼짝도 못하게 되었구나. 다시는 스승님께 행패부리지 않고 끝까지 잘 모시고 가겠노라 약속할 수밖에. 이리하여 우리 마음 원승이 손오공 불보살님의 힘에 의해 도망갈 길이 막혔으니 이걸 불퇴전의 길로 접어들었다 할 수 있을까?

현장법사, 든든한 제자이며 충실한 수행원이던 손오공을 잃었으니 정말 앞길이 막막하네. 있다가 없으니 더더욱 아득한 심정일 겁니다. 원래 없던 것보다 더 심한 박탈감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찌면 당연한 일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어찌 어찌 마음이 바른 길로 접어들기는 했지만, 그렇게 금방 그 길에 익숙해져서 사고 없이 잘 갈 수 있었어요? 앞으로 수없이 일 치르고, 헤매가면서 나가야 할 때

나면 수행의 길이 있겠지요. 내 마음이라고 해서 내 뜻대로 되던가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정말 문제지요. 어? 이렇게 말하고 보니 말이 되는 말인가 모르겠네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 앞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고 뒤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 또 말하는 말하고 말이 되는 말은 뭘지... 헷갈리네요. 그래서 헤매니즘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하하~.

그런데 불보살님은 이런 정도 이미 예상하고 계셨던 듯 하네요. 관세음보살 출발할 때 부처님이 주신 쇠고리가 바로 이런 때를 위해 준비된 것이지요. 그걸 전해주면 해결될 일... 그런데 보살님께서 그걸 전해주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보면 좀 불경스런 일이 되겠지요?

초발심 후에도 수행에는 번뇌가 나와 현장 떠난 손오공은 이런 번뇌심 의미 관음보살 마음 다스리는 진언 전해

“마음 원승이 그놈이 그리 쉽게 길들여지리라 생각할 수 없지.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서 막을 방벽을 이미 마련해 놓았지. 아마도 여자저차하여 그녀석 다시 돌아올게. 그런데 이참에 앞으로 이런 일 일어날 것을 미리 대비하자꾸나. 여기 쇠로 테를 넣은 두건이 있지. 그게 어울리는 옷도 한 벌 있고. 손오공 돌아오거든 이 모자 씌우고 옷을 입히거라. 그리고 요게 중요한 것인데 말이야, 마음을 딱 붙들어 매는 주문이 있어. 요걸 잘 외워 두어라. 그리고 손오공 두건 씌우고 옷 입혔거든 한번 외워 보거라. 쇠테가 그 녀석 머리를 파고들며 조여 댈 테니 이따서 때굴 때굴 구르게 될 게다. 앞으로도 말 안 듣는 경우 써먹으면 되니 한번 호되게 맛을 보여 주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음흉하게 흐흐~ 웃으신다... 어떨까요? 완전히 사기꾼에 음모가 냄새가 나겠지요? 그런데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좀 불경스럽지만, 너무 경건주의에 얽매이면 재미가 없거든요. 가끔 좀 불경스럽게 상상해보면서 웃는 맛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리고요, 이렇게 종교적인 경건성에 너무 매달리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하면 새롭게 연는 것도 참 많답니다. 전혀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앞에 좀 불경스럽게 이야기를 꾸미는 속에 몇 가지 취할 점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길들이는 데는 좀 극단적인 수단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 정말 독한 처방을 써야 하는데, 그럴 때는 마음을 살살 구슬러서 그 독한 처방을 받아들이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바람직한 것은 마음을 잘 달래서 친구처럼 데리고 가는 것이 좋겠지만, 언제나 그럴 수만은 없는 겁니다.



그림 · 최주현

니다. 이놈의 마음이 정말 어깃장을 심하게 놓을 경우, 어찌해 볼 수가 없을 경우, 그런 때는 독한 처방이 필요하지요. 우리들도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는 독한 처방 하나쯤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 달랠라 달랠라 안 되면 어떤 처방을 쓰시나요? 김고아주처럼 마음을 꼼짝 못하게 얹어매는 주문 하나 가지고 계신가요? 없으시면 이번 기회에 한번 장만에 보심이 어떨까요?

아무튼 현장법사는 관세음보살님으로부터 손오공을 구속할 쇠테두리와 정심주를 받습니다. 쇠고리는 적당한 모자의 테두리로 변신이 되어 있는 상태지요. 그리고 그 쇠테두리를 조일 수 있는 정심주를 전해 받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김고아주라 한다던가요? 뜻을 풀면 정심주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주문이요, 김고아주는 테두리를 조이는 주문이네요. 머리에 쓴 테두리를 조여서 손오공을 꼼짝 못하게 하는 주문이지요. 그리고 손오공은 우리 마음을 대표하는 것이니까 마음을 항복받아 방향을 그치게 하는 주문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해서 손오공을 길들이 준비는 되었습니다. 문제는 손오공이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현장법사 제주로는 손오공을 잡아들일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손오공이 제 발로 돌아오네요. 보살님은 그렇게 제 발로 돌아올 것을 예견하고 계셨지요.

흠~. 그 처방지족 손오공이 어찌 제 발로 돌아올까요? 서유기 작가가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돌아오게 되어있지요. 올바른 길로 마음을 낸다는 것, 그리 쉽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한번 발심한 공덕은 그리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발심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구요. 손오공만 해도 얼마나 고생을 했나. 무려 500년을 오행산 밑에 깔려 지냈습니다. 그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바람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요괴라는 존재를 넘어서 참된 신신이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현장법사를 따라 나서게 한 동기가 된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옳은 길을 향해 한번 일으킨 마음, 조금 약해지기도 하고 방향하기도 하지만 결코 그대로 사그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불법문중에 들어와 일으킨 큰 서원, 어떤 때는 서원의 존재도 잊고 살기도 하고, 한없이 방향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부처되는 그 길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부처 이루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모두 부처님께 수기를 받으셨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좀 긴 세월이 걸릴지 모르지만... 여기서 거룩하게 “나무마하반아바라미~” 추미새를 넣고요~.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천둥벼락승이를 벗어나지 못한 우리의 마음 원승이 손오공, 그대로 휘하고 화과산 수렴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무언가가 그 발걸음을 머뭇거리게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행패부리며 여의봉 빼앗기도 했던 동해의 용궁에 슬며시 들려옵니다. 동해 용왕, 손오공 다시 보고는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그러나 손오공이 불문에 들었고, 현장법사의 제자가 되어 인도로 불경 가져다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고는 마음을 놓습니다. 그리고 차 한 잔 대접하며, 그런 분이 왜 인도로 가지 않고 여기로 들렀느냐 물을 수밖에요. 손오공이 여자저차해서, 성질이

나서 뛰쳐나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하는 중에 벽에 걸린 그림이 손오공 눈에 들어옵니다. 중국의 유명한 고사를 그린 그림이네요. 황석공이 일부러 신발을 다리 아래로 떨어뜨리고, 지나가던 장량에게 주워오라고 시킨 이야기죠. 세 번이나 그런 심부름을 반복해서 시켜도 장량은 전혀 안색도 변함없이 공손이 주어서 드렸다 하지요. 그 심성을 인정하여 황석공이 장량에게 천서(天書)를 전하였고, 그 천서를 배워 장량이 유방을 도와 한나라를 세우는 위업을 달성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왕은 이 이야기를 빌미로 손오공을 설득합니다. 큰 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조그만 일을 잘 참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못하고 이대로 돌아서버리면 당신은 끝내 요괴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발끈하는 마음에 뛰쳐나오기는 했지만, 이미 선근이 심겨있던 손오공, 그러지 않아도 자기가 너무 성급했다는 것을 은근히 뉘우치고 있던 손오공, 여기서 마음을 돌립니다. 역시 당나라 스님 모시고 가야겠다!

여기서 우리 한번 손오공에게 박수를 보내야 하겠지요? 찬탄을 해야 하겠지요? 장다 손오공! 누구나 잘못을 할 수는 있지. 실수할 수 있지. 중요한 것은 그것을 고치는데 거리낌이 없어야 하는 것! 공자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허물을 범하였거든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말라”(過勿勿憚改)고. 네가 <논어(論語)>라도 읽었나 보구나!

이크! <논어>가 나를 대목이 아닌가요? 뭐 어때요. 요즘 하는 통선에 공자님하고 부처님하고 친분이 꽤 두텁단 소식도 있으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하하~ 다음 시간에 봐요.

법당조성 후원자를 찾습니다

일생동안 불교수행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만행도 많이 하여 법보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만행을 하고 법보시도 합니다. 법당을 조성하여 불자님들의 가정에 행복하고 가문을 이루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정방문 상담과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분은 태아영가, 조상영가천도와 기도를 해드립니다. 상담도 하시고 후원도 해주세요. 후언해 주시는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면 좋은 지도자가 됩니다. 후원도 좋고 훌륭한 분 추천도 환영합니다.

창업, 개업을 하실 분 상호, 좋은이름 작명해 드립니다.

홍증 ☎ 02)739-5008

꿈바위 시대가 왔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자녀 교육문제, 대학 입시기도
- 사업성공, 가족갈등
- 변비, 지방간, 당뇨, 비만, 알콜중독, 특별기도와 지도함
- 대학입시 합격기도 전화상담가능

가정 및 회사 방문하여 기도해 드립니다

- 태아영가 조상영가 천도
 - 부산 - 일본 오사카(선상천도)
- 확실한 천도가 됩니다. 선상에서 천도하며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참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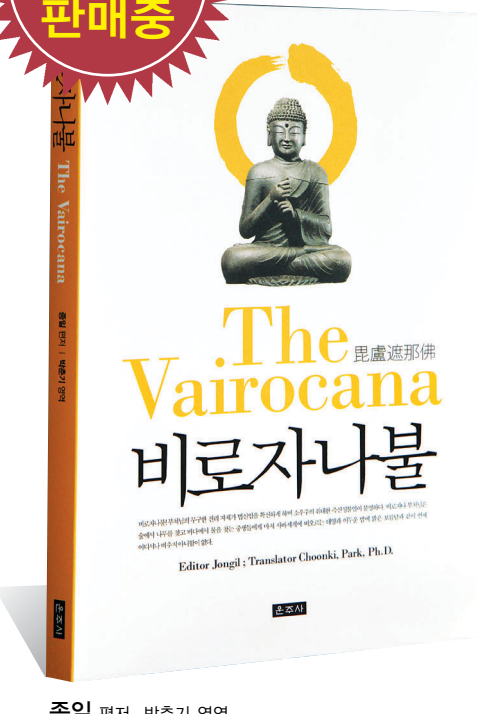
꿈바위불교교육원 대전시 중구 대흥동 468-1 010-6789-5008

참 불자를 위한 성불로 가는 지침서

종일스님의 비로자나불

21C 3대 과제 : ①인간과 자연의 화해 ②종교 간의 화해 ③지식과 삶의 화해

전국유명서점 절찬리 판매중



The Vairocana 毘盧遮那佛

나무 암밤람함감 청정법신 대교주 비로자나 부처님!

비로자나불! 부처님의 무구한 진리 자체가 법신임을 확신하게 하며 소우주의 위대한 즉신성불임이 분명하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숲에서 나무를 찾고 바다에서 물을 찾는 중생들에게 마치 사바세계에 떠오르는 태양과 어두운 밤에 밝은 보름달과 같이 언제나 어디서나 비추지 아니함이 없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체득함으로써 우리네 삶이 영원히 나고 죽음이 벗어나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참된 자유 참된 행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다. 이 얼마나 숭고한 이치인가! - 불교TV 회장 석성우 스님의 추천사 중

종일 편저 박춘기 영역 193쪽 값 12,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 구입문의 : 도서출판 운주사 02-3672-7181